

양산 ICD 소식지

October 2014 Vol.39

Yongsan Inland Container Depot Co., Ltd. MAGAZINE

The Story, 양산ICD

물동량 Report

2014 양산ICD 물동량

News+

항만물류관련 3/4분기 주요 뉴스

전문가 칼럼

북극항로 시대의 개막과 부산항의 발전방향

The Magazine, 양산ICD

笑笑한 라이벌

전어 VS 대하

On the road

근대문화의 향수에 젖다 _ 대구 근대문화골목



가을집시

안도현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 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양산 ICD 소식지

양산 ICD _ October 2014 Vol.39
Yangsan Inland Container Depot Co., Ltd.

Contents

The Story, 양산ICD

- | | | |
|----|------------|--------------------------------------|
| 04 | 물동량 Report | 2014 양산ICD 물동량 |
| 06 | Issue | 3/4분기 양산ICD 주요 이슈 |
| 08 | News+ | 항만물류관련 3/4분기 주요 뉴스 |
| 14 | 전문가 칼럼 | 북극항로 시대의 개막과 부산항의 발전방향 |
| 20 | 이야기 나눔이 | 상념(想念) - 어느 가을비 오는 날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

The Magazine, 양산ICD

- | | | |
|----|-------------|---------------------------------------|
| 24 | 불후의 명곡 | 가을의 끝자락에서 그리움을 외치다 _ 잊혀진 계절 |
| 26 | 笑笑한 라이벌 | 가을 입맛 돋우는 최강자는 바로 내! 전어 VS 대하 |
| 28 | 스포츠는 살아있다 | 오르고 내려다보며 느끼는 짜릿한 성취감! 암벽등반 |
| 30 | On the road | 근대문화의 향수에 젖다 _ 대구 근대문화골목 |
| 34 | 그 카페 | 갓 내린 커피의 향기처럼 진한 사색에 잠기다 _ 책 읽기 좋은 카페 |
| 36 | 여행을 여행하다 | 방콕의 과거와 만나는 시간, 랏따나꼬신을 걷다 |

어울마당

퀴즈도 풀고, 의견도 나누고

2014년 양산ICD 물동량

YANGSAN ICD

THE QUANTITY OF GOODS TRANSPORTED

년도별 물동량 처리실적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CY(TEU)		1,208,076	1,330,885	1,123,385	1,065,380	1,025,146	646,564	395,075	293,418	195,496	157,490
CFS(R/T)		1,417,285	1,330,680	1,145,602	1,039,705	1,209,461	1,007,769	1,185,602	868,759	670,178	562,765
일반화물(TON)		-	-	-	8,439	204,101	366,438	522,791	639,453	820,225	923,647
전년대비 증감율(%)	CY	+15.1	+10.2	-15.6	-5.2	-3.8	-36.9	-38.9	-25.7	-33.4	-19.4
	CFS	+36.8	-6.1	-14.0	-9.2	+16.3	-16.7	+17.6	-26.7	-22.9	-16.0
	일반	-	-	-	-	-	+79.5	+42.7	+22.3	+28.3	+12.6

2014년도 컨테이너 및 화물처리 실적

단위 : TEU

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구 분		반 입			반 출			계		
		F	E	계	F	E	계	F	E	계
1월		2,144	4,136	6,280	1,110	4,582	5,692	3,254	8,718	11,972
2월		1,814	4,276	6,090	856	5,055	5,911	2,670	9,331	12,001
3월		2,179	3,523	5,702	829	5,189	6,018	3,008	8,712	11,720
4월		2,355	4,083	6,438	965	5,948	6,913	3,320	10,031	13,351
5월		1,988	3,382	5,370	791	4,981	5,772	2,779	8,363	11,142
6월		1,876	3,216	5,092	791	5,686	6,477	2,667	8,902	11,569
7월		2,264	3,490	5,754	851	5,749	6,600	3,115	9,239	12,354
8월		1,958	2,875	4,833	740	5,340	6,080	2,698	8,215	10,913
9월		1,916	3,296	5,212	764	4,536	5,300	2,680	7,832	10,512
계	물동량	18,494	32,277	50,771	7,697	47,066	54,763	26,191	79,343	105,534
	점유비(%)	36.4	63.6	100	14.1	85.9	100	24.8	75.2	100

CFS 화물처리 현황

구 분		화 물 량(R/T)			T E U		
		수 출	수 입	계	수 출	수 입	계
1월		13,393	26,765	40,158	503	1,387	1,890
2월		8,826	24,642	33,468	299	1,384	1,683
3월		10,118	30,253	40,371	347	1,631	1,978
4월		10,229	31,652	41,881	338	1,744	2,082
5월		7,346	26,785	34,131	244	1,435	1,679
6월		8,367	25,218	33,585	317	1,301	1,618
7월		7,126	29,798	36,924	242	1,497	1,739
8월		5,837	26,880	32,717	209	1,387	1,596
9월		6,894	25,110	32,004	238	1,305	1,543
계	물동량	78,136	247,103	325,239	2,737	13,071	15,808
	점유비(%)	24.0	76.0	100	17.3	82.7	100

※ 화물량(R/T)은 소수점으로 집계되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 : TON

일반 화물처리 현황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3동기대비 증감율(%)
	년 간	1월 - 9월	1월 - 9월	
총 계	923,647	664,006	892,729	34.4
택 배	572,699	424,965	474,728	11.7
일반잡화	350,948	239,041	418,001	74.9

※ 일반화물중 택배비율 약55%, 그 외 약45%

단위 : 대

중고자동차 수출 물동량 현황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3동기대비 증감율(%)
	년 간	1월 - 9월	1월 - 9월	
처 리 량	4,961	3,144	5,247	66.9

ICD ISSUE

3/4분기 ICD ISSUE

양산ICD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10단지 (주)글로벌 창고(건축면적/연면적:1,485㎡/1,485㎡) 건축과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2014년 7월 4일 양산시로부터 얻었다. 공사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대경종합건설(주)에서 창고증축 시공을 담당한다.



5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 관련 회의 개최

2014년 8월 24일 양산ICD 5단지 내 주도로로 (공유부지) 파손과 관련하여 해당업체 책임자들의 회의가 당사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인터지스, 남성해운, SK해운, 디티씨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5단지 내 주도로 파손에 대해 공동보수 키로 업체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

3단지 (주)동방 탱크 컨테이너세척장 임시사용승인

2014년 7월 1일 진승건설에서 공사를 시작한 3단지 (주)동방 탱크 컨테이너세척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9월 24일 양산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얻었다. 증축 규모는 건축면적 290.46㎡, 연면적 415.42㎡이며, 9월 30일 준공 완료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014년 9월 25일 양산ICD 회의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기업전문교육원 강병하 강사의 진행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성희롱 관련 법령 및 성희롱 개념 및 사례,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면 교육이 이루어졌다.



기지 내 PEB건축물 합동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에서 PEB건축물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PEB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양산ICD 기지 내 PEB 건축물 시공실태 점검을 2014년 7월 9일, 14일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안전 점검은 양산시 건축과 및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참여하였으며, 해당업체는 (주)한진을 비롯한 7개 업체이다.



※ PEB(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s)

- 철골구조물을 세운 다음 외벽을 샌드위치 패널(얇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유리솜 등 충전재를 넣어 무게를 지탱하게 하는 건축 자재)로 마감하는 공법으로 내부에 기둥을 세울 필요가 없어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공법

CJ대한통운(주) 4단지 부지 재임대 승인

- 승인내용

업 체 명	부 지(㎡)	임대기간	승인일자
(주)해주종합물류	1,320	'14. 9. 5 ~ '15. 9. 4	2014. 9. 23

※ 승인조건

- 양산ICD 운영관리규정 준수
- 재임대 계약해지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서면 통보



NEWS+

3/4분기 항만물류동향

2014년 상반기 항공운송 여객과 화물시장 상승세 지속 금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각각 여객 9.4%, 항공화물 5.0% 증가

2014년 상반기 항공운송시장은 여객 및 화물시장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여 상승세를 지속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상반기 항공여객은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제선 여객은 환율로 인한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 항공사 여객기 운항편 확대, 한국 드라마 인기로 힘입은 중국과 동아시아 방한수요 확대에 따른 직항여객 수송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9.6% 증가하여 역대 상반기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25.3%)과 유럽(13.6%), 동아시아(9.9%)

노선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본 노선은 엔저 지속, 한일 정치적 갈등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4.7% 감소했다.

공항별로는 중국 등 아시아지역 운항 확대로 양양(11,739명→80,607명, 586.7%)·청주(76.8%)·제주(54.9%)·무안(11.3%) 공항은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김해와 인천공항도 각각 9.2%와 8.1% 증가하는 등 모든 공항이 성장세를 기록했다.

항공사별로는 국적항공사 점유율은 63.9%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 52.3%, 저비용항사는 11.6%를 기록했다. 국내선 여객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 등 기상조건으로 인한 국내여행 수요 증가 및 상반기 공급량 확대 등으로 제주노선 여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9.0% 증가했다.

항공화물의 경우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 확대와 수출입 호조에 따른 화물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5.0% 성장하여 179만 톤을 기록했다. 국제화물의 경우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편 확대 및 메모리반도체, LTE폰 수출 선전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158만 톤 → 166만 톤)했으며 국내 화물도 13.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7%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주변 국가와의 경쟁 심화, 환율 변동성 확대,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및 국내 경기회복 지연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도 상존하나 국제·국내선 운항증가, 한류 영향에 따른 외국인 방한수요 확대, 휴대기기 및 반도체 관련상품 수출 호조 지속 및 원화가치 상승에 힘입은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쉬핑투데이 7월 25일자〉



“부산항 부가가치 높여 물동량 감소 위기 넘자” 市·BPA “양적경쟁 → 질적경쟁”, 현재 부가가치액 세계 9위 그쳐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세계 5위에서 6위로 추락한 부산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는 이처럼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항만경쟁력 강화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부산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액은 2012년 기준 4조5000억 원으로, 세계 9위 수준에 그친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신항 컨테이너 부두 40선석을 건설·운용하고 해운항만 관련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세계 5위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해양경제 중심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컨테이너 환적화물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한 점에 주목해 신항 LNG버커링기지 및 수리조선단지 조성, 선용품 공급업 확대, 선박관리종합산업 육성, 국제해운거래소 설립 및 해양파생금융시장 확대를 통해 세계 3위, 동북아 1위의 환적항을 육성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911만5000TEU이고, 이중 환적화물이 460만TEU로 전체 50.5%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 환적화물 비중은 전체 880만9000TEU의 49.1%인 432만4000TEU였다.

부산항만공사는 주요 선사 환적 물동량을 분석한 결과 머스크, APL, MOL, NYK, MSC는 선대 교체에 따른 물량 증대와 부산항 공컨테이너 집하장 이용으로 환적 물량이 늘어났지만 현대상선, ZIM, OOCL, 에버그린은 북중국 직기항으로 환적화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적화물 치중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환적화물은 수출입 물량이 받쳐줘야 지속적인 동반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출입 물량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 직기항이 늘면 환적화물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항의 북항 물량 빼앗기 식 ‘제로섬 게임’에 따른 덩핑경쟁을 막기 위해 신항의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제신문 8월 10일자〉





NEWS+

3/4분기 항만물류동향

북항 '정부합동청사' 2016년 착공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지역에 들어설 '부산지방정부합동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화 된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북항재개발사업 지역에 들어설 부산지방정부합동청사 건립 설계비 22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부산항만공사는 내년에 합동청사 설계에 착수해 2016년께 착공, 2018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천195억 원이다.

부산지방합동청사에는 부산경남본부세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국립부산 검역소 등 CIQ(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기관을 포함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등 모두 6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합동청사 입주가 불투명했던 부산경남본부세관의 일부 인원들도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 CIQ 기관들이 있는 곳에는 북항재개발사업의 핵심시설인 복합도심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기 때문에 설계비 반영은 의미가 크다. CIQ 기관들이 제 때 옮겨 가야 복합도심시설 건립사업을 비롯한 북항재개발 사업 전반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CIQ 기관 이전은 2008년 북항재개발 사업계획에 반영됐고 2011년부터 건립 계획이 수립됐지만 지금까지 예산 확보가 안 돼 미뤄져 왔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8월 북항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원과 부산시 등과의 공조로 사업비가 반영됐다.

내년 초 개장하는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합동청사는 유동인구 유발로 북항재개발 지역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 9월 12일자〉



부산 신항에 고압가스용 컨테이너 장치장 생긴다 한진해운신항만 인접 지역에 2700㎡ 규모로 내년 초 건립

부산항 신항에 '고압가스용 위험물 컨테이너 장치장'이 조성된다. 선사들이 고압가스를 포함한 환적화물을 보관할 위험물 장치장이 신항에 마련돼 있지 않아 위험물 장치장이 있는 양산으로 고압가스를 반출했다가 다시 선적하느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다른 항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한진해운신항만(HJNC) 인근 2700㎡ 규모의 고압가스용 위험물 컨테이너 장치장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PA는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창원시와 협의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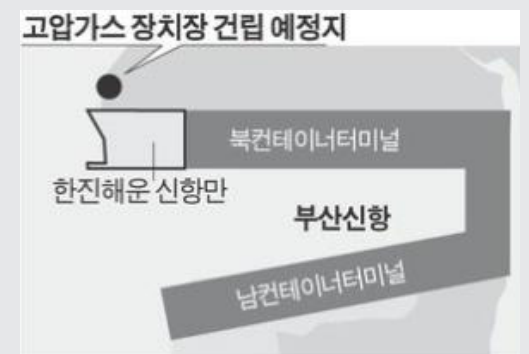
부산항에 고압가스 컨테이너 장치장을 건립하는 것은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꼽혀왔다.

부산항의 고압가스 컨테이너 처리량은 지난해 2만9030TEU로 그리 많지 않지만, 위험물 장치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부산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BPA 최준우 글로벌마케팅팀장은 "부산항에는 고압가스를 담은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컨테이너 화물과 고압가스 같은 위험화물을 동시에 실은 배는 부산항 입항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위험물 장치장이 없어 화물 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겼다. 고압가스 화물을 싣고 부산항에 오더라도 고압가스 장치장이 없어 부두에 보관하지 못하고 위험물 장치장이 있는 양산 시설업체까지 왕복 100km가량을 이동하는 데 컨테이너 한 개에 100만 원의 추가 운송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압가스 컨테이너 장치장이 생기면 위험화물을 포함한 환적화물 유치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BPA 임기택 사장은 "고압가스 장치장을 건립하면 위험 화물을 부두 안에 보관할 수 있어 선대교체 물동량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위험화물은 하역·장치로 모두 일반화물과 비교해 배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BPA는 해수부, 창원시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내년 초 신항 내 고압가스 장치장을 건립해 직영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신문 9월 14일자〉





NEWS+

3/4분기 항만물류동향

“신항 배후 단지 투자” BPA-일본기업 MOU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에 일본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일본 물류업체 나이가이트랜스라인(주)과 부산항 신항 웅동 1-3단계 배후물류단지 투자 유치 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나이가이트랜스라인은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물류서비스 회사

이다. 나이가이트랜스라인은 웅동 1-3단계 내 3만 3천㎡ 부지에 2016~17년 70억 원을 투자해 사무용 기기와 부속품 등 다양한 화물을 집하, 재포장, 라벨링, 보관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나이가이트랜스라인은 여기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 중에 있어 연간 4만TEU(약 6m짜리 컨테이너 단위) 물량의 신규 화물을 창출할 전망이다. 2010년부터 운영 중인 부산항 신항 배후 단지에 투자 유치한 외국 기업 수는 총 74개 사로 지금까지 901억 원이 투자됐다.

박충식 BPA 운영본부장은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신항 배후단지에 투자해 신항이 동북아 물류 허브 거점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일보 9월 23일자〉

부산항 8월 ‘컨’ 물동량 153만 1천 TEU, 8월 누적량 Ningbo항에 뒤져 6위

부산항의 지난 8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한 153만 1천301TEU를 기록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8월 물동량은 수출입 75만 1천97TEU, 환적 77만 9천935TEU로 각각 전년 대비 2.3%, 8.7%씩 증가했다.

부산항 물동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환적 물동량은 중국(23만 9천71TEU)과 미국(9만 8천805TEU), 유럽(4만 6천789TEU) 물량이 각각 12.5%, 4.0%, 48.3%씩 증가했다.

반면 일본(10만7천702TEU)과의 환적 물동량은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비중은 중국 30.7%, 일본 13.8%, 미국 12.7%, 유럽 6.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 간의 환적 물동량은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올해 8월까지 부산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3.5% 증가한 1천219만TEU이다. 배후부지 산업을 기반으로 올 들어 성장률이 10%를 넘고 있는 Ningbo-저우산항(1천304만TEU)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다.

신항과 북항의 물량 처리비율은 65대 35로 지난해 62대 38에 비해 신항으로의 물량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북항의 처리 물량은 52만 7천339TEU로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한 반면, 신항은 100만 3천693TEU를 기록해 12.1% 증가했다.

〈부산일보 10월 1일자〉

북극항로 시대의 개막과 부산항의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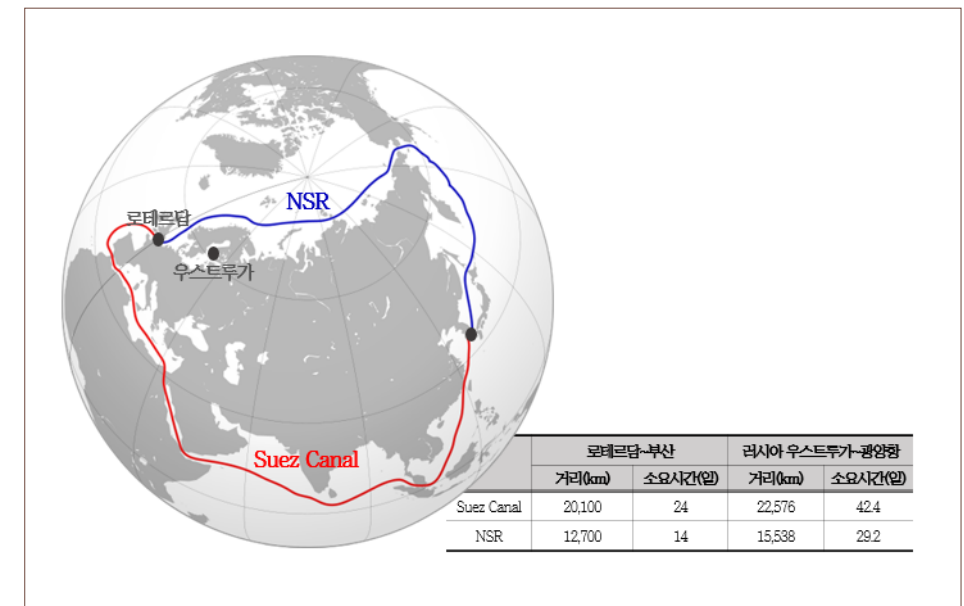
박진희
한국해양대학교
물류시스템공학과 부교수

북극항로 시대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환경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반면, 물류분야에서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달갑게 여기고 있다. 그 이유는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새로운 항로로 인한 물류의 효율화와 북극 자원 개발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USGS(U.S. Geological Survey)에 의하면 북극에는 전 세계 미 발견 석유·가스 자원량의 22%에 해당되는 4,12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북극의 해빙 속도의 가속화로 인해 이러한 매장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새로운 교역로가 개설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극은 남극과는 달리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둘러싸인 해양 중 공해는 약 18%인 약 253만km²이다. 이 역시도 세계 각국이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이 지역의 자원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정이 필수적이다. 북극해의 관리는 러시아·미국·캐나다·노르웨이·스웨덴·아이슬란드 등 연안국들로 구성된 북극이사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가 기반시설 확충 및 군대 배치, 29곳의 북극해 해저 유전 개발 등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도 「북극해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캐나다도 「우리 북극, 우리 유산, 우리 미래」라는 이름의 북극개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인도,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도 2013년 5월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며 북극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북극위원회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극항로는 크게 북서항로, 북동항로 분류된다. 북서항로는 북아메리카와 캐나다의 북극군도를 연결하는 항로이며, 북동항로는 북부 유라시아 및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항로이다. 북동항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활성화되었지만, 북서항로는 그동안 거의 이용되지 않았으며, 지리적 여건상 우리나라가 주요 이용할 항로는 북동항로의 일부 중 베링해협(Bering Strait)에서부터 카라관문(Kara Gate)에 이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를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NSR)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1) 북극항로와 수에즈운하 비교 (배경사진 출처 : Wikipedia)

북극항로를 통해 대체될 수 있는 항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컨테이너화물이 수송되는 유럽과 아시아 간 수에즈운하이며, 약 10일 정도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국적 선사 최초로 현대 글로벌이여천 NCC가 수입하는 나프타 4만4천을 싣고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한 결과, 러시아 우스트루가항에서 광양항까지 약 13일을 절감시키고, 1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등 북극항로의 경제성을 증명하였다.



북극항로의 한계점

북극항로는 신 해상 실크로드로 불리며 새로운 교역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최근 부정적인 여론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해운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해 상용화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이후 상용화가 되더라도 경제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 3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최대 3개월로 2020~2030년까지는 부분적으로 개방되기 때문에 정기선 운항이 필수적인 컨테이너선의 운항은 힘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북극해의 험난한 항해조건으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극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통행료, 쇄빙선 이용료, 위험부담으로 인한 높은 보험료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비용 증가분이 거리·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감소분을 초과하기 때문에 화주들의 참여를 이끌기 힘든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북극해 인근 인프라와 법적 제도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극항로 상 주요 거점항만들은 증가하는 물동량에 비해 처리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선박급유나 선박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송조건이 간단하고 수요만 적정하면 선박투입이 가능한 벌크화물의 수송은 개선폭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베리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주요 수입국인 일본, 한국, 대만 등으로 해상 운송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추후 북극항로 통행료 및 쇄빙선 이용료가 조정되고,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가장 많은 물량이 확보될 수 있는 컨테이너선의 운항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북극항로의 잠재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 여건 및 준비상황

국내에서는 2009년 극지탐사선인 '아라온호'를 건조하고, 2010년 북극항해를 수행하면서 북극항로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3년에는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의 정식옵서버로 승격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하는 등 북극해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도 북극항로 전진기지 자리를 놓고 관련 연구 및 협의회 구성, 포럼 개최 등을 통해 대응전략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주체별 북극항로 대비 추진경위

주체	주요 내용
정부	- 아라온호 건조 및 북극 항해 수행('10) - 북극이사회 영구 옵서버 진출('13) -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 수립('13) - 북극항로 시범운항 실시('13) - 극동 시베리아에 물류 단지 추진계획 발표('13) 「북극정책 기본계획」 수립(제 2 쇄빙연구선 건조, 볼룸인센티브제 등)('13) - 북극항로 첫 상업운항 추진 중('14~)
지자체	- 울산항만공사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세미나와 컨퍼런스 개최('12)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을 중심으로 북극항로 시대 개막에 대비해 워킹그룹 발족('13) - 해양수산부·부산시·한국해양대 주최 러시아 전문가 초청 북극항로 관련 심포지엄 개최('13) - 부산시 「북극정책 세부추진계획」 수립('13) - 북극항로 강원항만협의회 설립('13) - 포항시 '북극해항로 개설에 따른 포항영일만항의 발전 전략' 용역('14) - 울산항만공사 크루즈·북극항로 진출 연구용역 실시('14)
연구·학계	- 한국해양연구원 노르웨이 �발바르섬에 다산과학기지 설립('02) - 부산발전연구원에 북극연구센터 설립('14) - 한국해양대학교 내 북극항로 연구센터 설립('09)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포항영일만항의 북극항로 발전전략 연구용역('14)
업계	- 한국석유공사 극한 지역 생산정(井) 연구 (주)현대글로벌비스 국적 선사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운항 실시('13) - SK에너지와 현대글로벌비스 신(新)항로 개척 사업에 참가업체로 등록('14)



항만별 경쟁력 분석

북극항로 개설 시 국내 주요 항만이 가지는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권역을 대표하는 대상항만을 선정하고, 현황 및 전망치와 설문을 통하여 산출된 요인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각 대상의 종합경쟁력을 산출하였다. 2030년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각각 산출한 이유는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북극항로가 완전 개방되었을 경우 수송 가능 화물과 항해조건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항이 2030년 이전과 이후 모두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부산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지리적 위치뿐 아니라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2030년 이후에는 이전에 컨테이너화물 운송의 가능성으로 인해 부산항의 경쟁력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북극항로 개설 시 국내 주요 무역항의 경쟁력

요 인		항 만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2030년 이전	북극항로 관련 거버넌스	북극 관련 조직 및 연구	0.023	0.043	0.025	0.021
		러시아와의 교류	0.024	0.045	0.025	0.021
	항만물동량	액체·벌크화물 물동량	0.037	0.005	0.082	0.094
		컨테이너화물 물동량	0.004	0.031	0.001	0.004
	항만비용		0.039	0.039	0.038	0.067
	항만인프라	항만시설능력	0.018	0.020	0.017	0.015
		항만입지 및 항로 접근성	0.011	0.030	0.023	0.017
		항만배후지여건	0.012	0.009	0.018	0.011
	항만서비스	항만관련산업	0.008	0.042	0.007	0.008
		항만연계수송	0.005	0.047	0.005	0.010
	계		0.180	0.312	0.240	0.269
2030년 이후	북극항로 관련 거버넌스	북극 관련 조직 및 연구	0.018	0.035	0.020	0.017
		러시아와의 교류	0.018	0.034	0.019	0.016
	항만물동량	액체·벌크화물 물동량	0.021	0.006	0.063	0.073
		컨테이너화물 물동량	0.017	0.083	0.002	0.018
	항만비용		0.058	0.0498	0.051	0.052
	항만인프라	항만시설능력	0.016	0.018	0.016	0.013
		항만입지 및 항로 접근성	0.010	0.027	0.021	0.016
		항만배후지여건	0.013	0.010	0.019	0.011
	항만서비스	항만관련산업	0.009	0.046	0.007	0.009
		항만연계수송	0.005	0.048	0.005	0.010
	계		0.186	0.355	0.224	0.236

출처 : 박진희 외2, 2014,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부산항 경쟁력 분석”, 「동아시아물류동향」 제 75호, p.120.

부산항의 발전방향

북극해 환경의 향후 여건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못한 요인들이 실제로 크게 작용할 수 있으며, 개설 초기에 경쟁력을 선점한 항만이 지속적인 우위를 점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북극항로 선점을 위한 부산항의 여건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북극항로에서 부산항의 SWOT

부산항은 북극항로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북극항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강점과 기회요인을 살려 북극항로를 통과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한 선박 급유업, 선용품 공급업, 선박 수리업 등 항만운송 관련사업을 활성화하여 북극항로 운항에 필수적인 기항지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북극해 관광 수요를 국제 크루즈터미널과 북항 재개발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해 관광 상품개발과 마케팅활동을 힘써야 한다. 대외적으로도 북극해에 특성화된 기관과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시기 적절하게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증가할 수 있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대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극항로가 개방되면 유럽-아시아 간 화물들은 그 길목에 있는 싱가포르, 홍콩을 거치지 않게 되면서 세계 항만의 컨테이너처리량 순위에 큰 변동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북극항로 이용 선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볼륨인센티브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예측한 2030년 북극항로 이용 컨테이너화물인 2,832만TEU를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과제로는 타 항만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항만산업을 견인하고, 지자체간 Win-Win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협업이 향후 수행될 필요가 있다. 지나친 경쟁은 타 항만과의 기능 중복과 같은 국가 항만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 념

- 어느 가을비 오는 날



| 변종화 |
| (주)한진 부산국제지점 과장 |

높은 하늘 너머 파란 물결이 흐른다.
물결은 하얗게 波浪치고
파랑은 울컥 눈물이 되어 아래로 향한다.
空間에 흩뿌리는 눈물은
방울이 되어 山川을 적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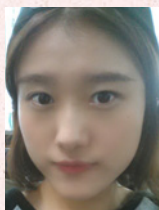
푸른 山 너머 하얀 물결이 흐른다.
雲霧는 초록을 붉게 물들이고
흠뻑 젖은 山河는 가벼운 寒氣를 느낀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寒氣는
내(我)가 되어 가을을 적신다.

멀리 水平線 너머 잿빛 물결이 흐른다.
파도는 파랗게 밀려와 하얗게 부서지고
비 머금은 회색 沙漠은 바다로 旅行을 떠난다.
歡呼는 이내 설렘이 되고
밤바다 하늘아래 傳說이 된다.

비 내리는 거리의 人波속에 물결이 흐른다.
빗줄기는 아우성을 지르며 雨傘에 부서지고
차갑게 부서진 방울은 大地의 품에 안긴다.
거리의 풍경은 想念이 되고
멈춘 듯 시간은 다시 흘러간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stress



| (주)제이스 김지원 사원 |

사람이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적당량의 스트레스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지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 만나서 수다도 떨고, 아님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가져 보고,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저는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 운동도 해보고 댄스학원도 다녀 보고 해봤는데 스트레스는 해소 됐지만 그것도 잠시뿐. 이것 만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맛있는 음식 먹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반응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 맛있다”를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먹게 됩니다. 정말 맛있으면 먹는 내내 이런 증상을 보이곤 하지요.

그 중에 해산물을 정말 좋아 하는데, 특히 새우는 정말 환상적인 맛이에요. 질리지도 물리지도 않는 그런 맛!! 하루 종일 새우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먹고 있으면 행복해요.

모든 음식을 먹을 때 마음 맞는 사람들과 같이 먹는 게 더 맛있고 기분이 좋겠지요? 먹음으로써 힐링도 되고 모든 근심걱정이 그 순간만큼은 사라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드라마!

저한테는 정말 드라마가 없었다면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할 정도예요. 재미있든 없든 모든 방영하는 드라마는 모두 꿰뚫고 있죠. ‘누가 나온다’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보는 편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봤어요. 여기저기서 드라마나 예능 얘기 하고 있으면 다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드라마 이야기 하는 걸 좋아 했어요. 못 본 친구들 있으면 얘기해주고 친구들이 실감나게 얘기한다고 재미있어하고, 재미있겠다며 봐야겠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만 고집해서 봐요. 보고 있으면 오늘 하루를 잊을 만큼 푹 빠져 있어요. 요즘은 재미있겠다 싶은 드라마만 봐요. 지금은 <연애의 발견>이라는 드라마에 빠져 있어요. 어찌나 재미있던지~ 알콩달콩 연애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제가 더 설렌다니까요? 연애 안 해본지가 너무 오래 돼서 이런 드라마만 눈에 들어오고 재미있나 봐요.

모르는 드라마가 없다고 아줌마 같다는 말 많이 들어요 (인정해요 ^^). 드라마는 내 삶의 만족인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과 모든 사람의 관심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했을 때 가장 즐겁고 그 간 받은 스트레스가 확 풀렸다 느껴지는 것이 자신만의 해소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심각해지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듯해요^^ 웃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처럼 자주 웃고 긍정적으로 생활한다면 조금씩 내 삶의 만족감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파이팅해요!!

가을의 끝자락에서 그리움을 외치다

잊혀진 계절

‘10월의 마지막 밤’ 하면 퍼뜩 당신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기괴한 분장을 하고 클럽에서 디제잉에 맞춰 ‘그루브’를 타는 할로윈 파티를 떠올렸다면 당신은 좀 놀 줄 아는 클러버(Clubber)일 것이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로 시작하는 노래가 떠올랐다면 당신은 늦가을의 아날로그 감성을 간직한 ‘추억자(?)’일 것이다.

가수 이용의 불세출의 히트곡이라 할 수 있는 〈잊혀진 계절〉은 1982년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후 매년 10월의 마지막 날이면 항상 라디오에서 신청곡으로 빠지지 않고 흘러나온다. 벌써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노래의 감성은 계절의 감성과 어우러져 영원불멸의 생명을 얻었다. 여러 후배가수들의 리메이크곡도 이 생명력에 한 몫 했겠지만, 원곡에 진하게 베인 이용의 목소리와 감정은 이 생명력의 원천이다.

박건호 작사, 이범희 작곡의 〈잊혀진 계절〉은 애초에 가수 조영남이 부르기로 하고 음반 녹음까지 마친 곡이었다. 하지만 조영남의 사정으로 〈잊혀진 계절〉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고 그러다 ‘국풍81(1981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던 대규모 문화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던 ‘젊은이 가요제’에서 〈바람이려오〉로 금상을 수상한 신인가수 이용에게 전해졌다.

또 노래 가사 속의 ‘10월의 마지막 밤’은 작사 당시에는 ‘9월의 마지막 밤’으로 되어있었지만 음반발매시기가 늦춰지며 바뀌었고 그러면서 더욱 노래의 계절색이 짙어졌다.

사연 많은 이 노래는 당시 80만장이 넘는 음반(LP)판매량을 기록했는데, 그 당시 국내 전축 보급수가 55만대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판매고를 올린 셈이다. 더불어 이용은 이 노래로 인해 더욱 많은 팬을 확보했고 당시 조용필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며 MBC 10대 가수 가요제와 KBS 가요대상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잊혀진 계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이용 〈잊혀진 계절〉
- 1982년 가요대상 中



1982년 신인가수였던 이용은 어느 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의 중견가수가 되었지만, 노래가 발표될 당시의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은 여전히 더벅머리를 하고 커다란 금테안경을 낀 20대의 그를 떠올릴 것이다. 아직도 매년 10월이면 방송국과 행사장을 다니며 〈잊혀진 계절〉을 부르느라 바쁜 이용에게는 그 팬들의 오랜 사랑이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게 하는 힘이리라.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은 왔고 또 10월의 끝자락을 바라보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라디오에서는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단골 신청곡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 노래와 함께 가을은 점점 끝나가고 이내 겨울을 맞을 것이다.

10월의 마지막 날 이 노래를 들으며, 스산해지는 바람과 함께 떠나는 가을을 붙잡고 인생의 어느 한 편에 자리 잡고 있는 가을의 추억을 꺼내 보는 건 어떨까?



가을 입맛 돋우는 최강자는 바로 나!

가을 Vs 대하



고소한 기름기가 '잘잘', 가을전어

'집 나간 며느리'가 전어 먹으려고 돌아오는 시절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 '명품백'이라면 또 모를까... 어쨌거나, 전어는 가을이면 명품백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계절 생선이 된다. '가을전어는 참깨가 서말이다'라는 속담에서처럼 고소함이 일품인데, 전어가 겨울을 대비해 지방을 풍부하게 축적시켜놓기 때문이다. 9~10월에 잡히는 전어의 꼬리를 보면 노랗게 기름이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지방은 불포화지방산(DHA, EPA 등)이기에 몸에 해롭지 않고 혈액을 맑게 해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잔가시가 많아 전어가 먹기 힘들다는 사람도 많은데, 화를 치거나 또 노릇노릇 구워서 뼈째로 오독오독- 씹어 먹으면 우유를 마시는 것보다 더 많은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좋고 또 여성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에 구운 전어 살코기를 톱- 얹어서 크게 한 입 먹으면,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으로 다른 반찬 필요 없이도 밥 한 그릇을 금세 푹딱 해치울 수 있다. 그리고 잘게 썬 전어 회 한 접시는 '소주도둑'이 된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소주잔을 주거나 받거나 하다보면 어느새 소주는 동이 나고 마니까.

철마다 '꼭 먹어줘야 하는' 별미음식이 있다. 가을하면 당연히 전어와 대하가 별미로 꼽히고 이것들이 많이 잡히는 지역에서는 축제를 열어 전국 식도락가들의 침샘을 자극한다. 4계절의 색이 열여지는 한반도에서 자칫 눈 깜짝할 새 지나치기 쉬운 계절이 되고만 요즘의 가을이지만 그래도 먹을 건 먹고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 당신은 가을전어와 가을대하 중 어떤 놈이 더 '땡기는'가?



빨간 껍질 속 탱탱한 속살, 대하

'새우야, 새우야 많이 뜨거웠지? 하얀 소금이불이 많이 뜨거웠지?' 무한도전 <언니의 유혹>편에서 나온 '새우'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맛있더라, 새우야'로 마무리 되는 이 시는, 가을 충남 태안에서 열리는 대하축제에서 맛본 대하에 감동한 방배동 노라(정준하)가 지었다. 새우는 어느 때나 먹어도 실망을 시키지 않는 맛을 뽐내는 해산물이다. 그러나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가을대하는 식신 정준하도 감동시키는 맛을 낸다.

대하는 생새우 회나 찜, 튀김으로도 즐기고 해물탕에 넣어 먹기도 하지만 가장 맛있게 즐기는 방법은 단연 구워서 먹는 것이다. 프라이팬에 쿠킹호일을 깔고 그 위에 신안 천일염을 살짝 뿌린 후 오동통한 대하를 올리면 끝! 별경게 달아오르면서 익어가는 '비주얼'만으로도 입에는 벌써 침이 한 가득이다.



빨간 색깔만큼이나 뜨거운 껍질을 후- 후- 식혀가며 벗긴 후 하얗고 탱탱한 속살만 먹어도 좋지만 껍질째 먹으면 다량의 키토산과 각종 무기질을 고스란히 몸에 흡수시킬 수 있다. 또 콜레스테롤 때문에 대하를 기피하는 사람이라도 표고버섯이나 양배추 등을 곁들여 먹으면 영양이 잘 어우러져 문제될 것이 없다.

제철을 맞아 살이 오른 가을전어와 가을대하. 둘 중 어떤 것이 더 자신의 입맛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겨울 땡추위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전어나 대하 같은 가을철 별미로 입맛을 돋우고 풍부한 영양소도 챙겨보길 바란다. 아, 물론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말이다!



오르고 내려다보며 느끼는 짜릿한 성취감!

암벽등반

Rock Climbing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웃도어 라이프(Outdoor Life)는 일반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상의 무미 건조한 시간을 벗어나 주말이나 휴일이면 산이나 바다, 휴양림 등의 자연을 찾아, 평소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돌아오는 여가활동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차츰 아웃도어 라이프는 그 영역을 확장했다. TV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매스 미디어에서도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다루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렸고 그로 인해 아웃도어와 관련한 상품들의 매출은 늘었다.

보통 등산이나 트래킹, 캠핑과 같은 일반적인 여가 활동이 많은 사람들로 인기를 받고 있지만, 더욱 전문적인 아웃도어 스포츠를 통해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익스트림(Extreme) 스포츠로 분류되는 암벽등반도 그 중에 하나다.

나는 나를 정복한다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한계의 벽에 부딪치다'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한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벽의 높고 낮음은 자신의 의지와 힘의 크기에 반비례 한다고 생각하면 그 한계의 벽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벽의 높이는 태산(泰山)만큼 높기 마련이다.

암벽등반은 외적으로는 힘들게 몸을 쓰며 단순히 암벽을 기어오르는 행위로 치부될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여 피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정신수양의 스포츠라 할 수 있다. 힘들게 오른 암벽의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나약했던 자신 그 자체이다. 그 위에 서있는 나를 느끼면 그 때만큼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암벽등반 입문

앞서도 말했듯 암벽등반은 익스트림 스포츠에 속한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많은 편이라 야외에서 실제 암벽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실내암벽장을 통해 연습을 하는데 그 운동량이 만만치 않다. 실제 암벽등반 자체가 근력과 지구력이 중요한 스포츠이기에 연습을 통해 감각과 요령을 터득해야 한다.

또한 암벽등반은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해야 하기에 관련 장비들을 구비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헬멧과 로프, 암벽화와 리지화, 안전벨트, 카라비너(로프와 확보물을 연결하는 금속 고리), 하강기, 확보물(암벽의 틈과 같은 공간에 고정시켜 로프를 걸 수 있도록 하는 장비), 초크(손에서 땀이 많은 사람에게는 필수)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비들이 사용된다.

수 년 간 암벽등반을 해온 사람도 순간의 실수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에 신경을 써야 암벽등반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암벽을 거스르지 않으며 물아일체(物我一體)가 되기 위해 진중하게 오르다 보면, 철저하게 스스로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삶에 있어서 한계에 마주하는 순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것이더라도 암벽을 오르듯 나 자신을 한 단계 또 한 단계 극복해나가다 보면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이렇듯 암벽등반은 인생의 어렵고 답답한 순간, 스승처럼 가르침을 주는 스포츠이다.

근대문화의 향수에 젖다

대구 근대문화 골목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등장하기 시작한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됐다. 단순한 사물에도 거기에 깃든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물건이 된다. 화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쫓긋 세우고 들으며 흥미를 느끼는 청자, 이것이 스토리텔링의 핵심이다.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고 전하고 들어왔다.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것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자연이든 그 외의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지만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신적 유희활동 중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오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대구 골목투어 홈페이지 바로가기

(스토리텔링북, 골목투어 App, 지도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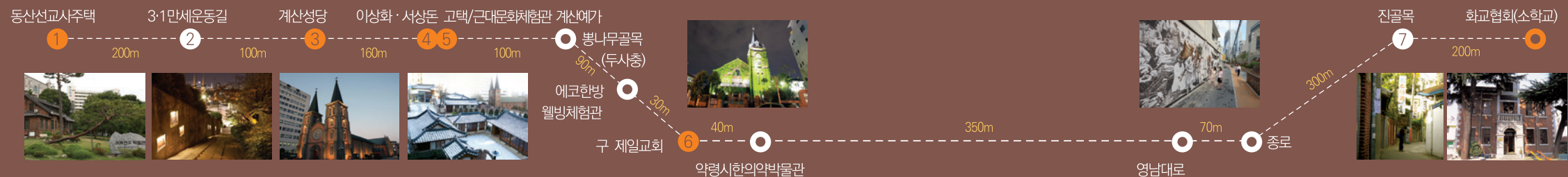
스토리텔링이 각광을 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특히 관광분야에서의 그 활용도가 높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지의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깃든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끌 수가 있다.

대구의 근대문화골목도 스토리텔링이 있는 명소로서, 대구광역시 중구의 골목투어 다섯 개의 코스 중 제2코스에 속하고 다른 골목코스들에 비해 더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어 골목투어를 대표한다.



근대문화골목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는 볼거리가 다채로운 것도 있지만 그 안에 깃든 흥미로운 이야기 또한 한 몫을 한다. 실제로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투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북 『근대路의 여행 - 골목』에도 5개의 코스 중 근대문화골목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내용으로 실려 있고 다른 코스에 대한 설명은 부록으로 삽입되어 있다.

2코스 근대문화골목 (1.64km / 탐방소요시간 2시간)



◀ 대구 근대문화골목 코스

(출처: 『대구 중구 골목투어 근대로의 여행』리플릿)

근대문화골목의 대표 명소를 몇 군데 뽑아보자면, 이국적인 건축양식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동산선교사 주택과 계산성당, 제일교회 등이 있는데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지 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특히, 계산성당의 경우에는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결혼식을 가진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작곡가 박태준, 시인 이상화, 화가 이인성 등 예술가들의 삶의 자취와 비하인드 스토리, 일제강점기에 저항 했던 민족운동가 서상돈의 고택과 3.1만세운동길 등 우리민족이 일제에 저항했던 흔적들 또한 이야기로 만나볼 수 있다.

▼ 이상화 고택



▲ 계산성당

이 외에도 근대문화골목에는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한 '스토리텔러'가 많다. 1.64km의 그리 길지 않은 골목길 속에서 끊임없이 전승되는 수많은 역사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이 이야기가 듣고 싶어 찾아 온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정겹게 때로는 분노하고 또 눈물도 흘리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인 것이다.

여름이면 태양보다 더 뜨겁다는 대구도 이제 가을의 정취가 깊게 무르익었다. 걷기 좋은 날씨에 대구 근대문화골목을 찾아 그 이야기들을 맘껏 듣고 오는 것도 가을 주말을 즐겁고 유익하게 보내기에 딱 좋을 듯하다.

※ 사진출처: 김진규 외, 『근대로의 여행 - 골목』, 2013, 대구광역시 중구청



▲ 선교사 챔니스 주택

갓 내린 커피의 향기처럼
진한 사색에 잠기다

책 읽기 좋은 카페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단풍처럼 싱송송한 가을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연애를 시작하거나, 혼자 훌쩍 여행을 떠난다거나, 문화 행사나 공연 등에 목을 매거나...

이런 저런 방법들로도 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다면 혼자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가을만큼 사색하기 좋은 계절도 없으니,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내팽개쳐 둔 책을 들고 가까운 카페로 가서 그윽한 커피향기에 취해 책도 보고 내 마음 심연(深淵)의 끝까지 한 번 내려갔다 와보는 건 어떨까?

바오밥 나무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바오밥나무'는 주택가 골목에 위치해 있어 오후 한가로운 시간에 찾아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을 보기 좋은 곳이다. 읽고 싶은 책을 가져가 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카페에 비치된 여러 책들 중 하나를 꺼내 읽어도 무방하다.

바오밥 나무에서는 수제파이와 수제쿠키를 전문으로 만들고 있어 허기진 배를 간단하게 채우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사실 사색은 굶주림 속에서 해야 제 맛(?)이지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닌 이상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곳에서 읽으면 좋을 책 추천!



『모멸감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김찬호 지음, 유주환 작곡, 문학과 지성사

인간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모멸감에 대해 파헤치고 그것을 통해 관계에서의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 부록으로 제공되는 CD에는 책의 각 파트별 주제에 맞게 작곡된 음악들로 구성되어 있어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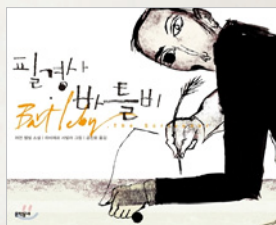


디아트(Diart)

부산 청사포 해변에 위치한 '디아트'의 1층에는 커피를 볶는 공간과 찻잔을 진열한 공간이 인상적이라 이국적인 분위기를 맘껏 느낄 수 있고 2층에서는 창가 자리에 앉아 해변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냥 물끄러미 한적한 어촌의 풍경을 바라봐도 좋고 저 멀리 수평선의 일렁임을 보며 잡념을 뿌리칠 수도 있다.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음악은 사색의 BGM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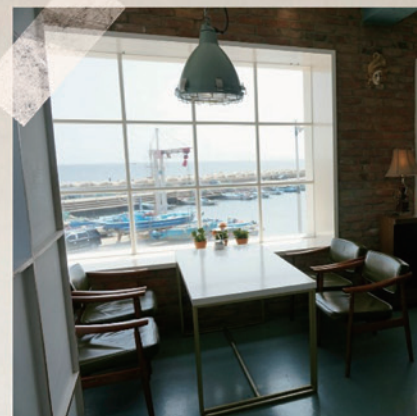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은 이야기를 엮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생두를 직접 볶아 내린 원두커피의 진한 향과 가을 바닷가의 깊고 푸른 풍경은 책과 함께 해도 나쁘지 않다.

이곳에서 읽으면 좋을 책 추천!



『필경사 바틀비』
허먼 멜빌 지음, 하이에르 사발라 그림, 공진호 역, 문학동네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고 어떤 의욕도 없을 때(책을 읽겠다는 의지는 있어야겠지만) 읽으면 어쩐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책이다. 그저 남들처럼,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온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제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방콕의 과거와 만나는 시간,

랏따나꼬신을 걷다

| 글쓴이 _ 권은정 |

| 여행작가 _ 걷는 건 싫지만 여행은 좋아하는 글쟁이 |

여행을 ‘준비’하는 것과 ‘떠남’의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늘 보고 싶었던 것’과 ‘내가 있었으면 하는 장소에 나를 두고’ 상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예약해야하고 비행기를 타야하며 출입국 수속을 마쳐야 되고 낯선 곳에서 숙소를, 또 여행의 목적지를 찾아가야 한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여행에서는 늘 방향과 이정표가 중요한 법이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랏따나꼬신에서 좋은 이정표가 되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100% 착각! 비슷한 길거리에 같은 편의점이 너무도 많았다. 시원한 물을 언제나 살 수 있게 해준 세븐일레븐은 좋은 동행자임과 동시에 시련의 대상이기도 했다.

랏따나꼬신은 유적지가 많고 국왕이 사는 곳과 가까운 탓에 BTS(방콕 도심 곳곳을 잇는 지상 전철, ‘스카이트레인’이라고 불림)나 MRT(지하로 다니는 전철)가 없어 이동이 편한 곳은 아니다. 도보 이용 시 복잡한 도로에서 이정표가 되어줄 기준점도 많지 않다(물론 큰 도로에 접하게 되면 조금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수많은 세븐일레븐 중에서, 현재 나의 위치에서 목적지 사이에 존재하는 세븐일레븐을 찾는 것’이다.

랏따나꼬신 지역 부근에는 태국에 오면 누구나 가본다는, 왕궁과 ‘왓 프라깨우’가 있다. 그곳으로 향하는 무거운 발걸음 중 자신을 ‘대학교수’라고 소개하는 분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씨암(방콕 고층빌딩)

그 황금빛 사원에 감탄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구에 서있는 한 아줌마(복장검사대)의 손짓으로, 매표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곳으로 향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복장불량’이다. 이곳은 태국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이므로 외국인관광객들도 복장에 신경을 써야한다. 적절한 복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200바트(한화 약6,000원)의 보증금을 내면 연분홍색 반팔 남방, 사롱 등을 대여해 준다. 뜨거운 태양 아래 완전무장을 한 뒤 사람들은 매표소에서 500바트(한화 약15,000원)의 입장권을 구매하면 고대하던 왓 프라깨우로 입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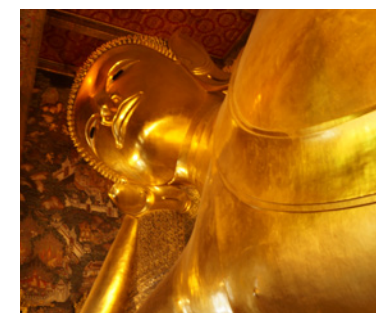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이 제일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에메랄드 불상이다. 영롱한 빛을 내는 에메랄드 불상은 아주 높은 곳에 있었다. 불상이 보여주는 그 모습도 좋지만 이곳을 둘러싸고 있는 정교하며 다채로운 색상의 벽화와 웅장한 황금탑 등도 눈여겨 볼만 했다.

왕궁과 왓 프라깨우를 둘러보았다면, 그 다음은 방콕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사원 ‘왓 포’로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 이곳에는 길이 46m, 높이 15m의 황금 와불(臥佛)이 있다. 처음에는 크기에 놀라지만 불당을 떠날 때는 와불의 온화한 미소를 통해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과 함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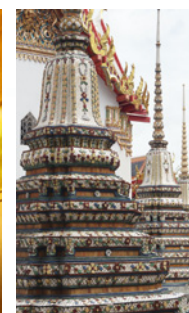
와불 뒤편에는 108개의 작은 항아리가 있으며 이곳에 동전을 넣으면 행운을 얻는다는 말이 있다. 계속해서 동전을 넣으면서 자신의 바람이 되뇌며 마음속으로 빌면 스스로 해낼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이 행운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는 게 아닐까? 이곳을 찾는 이라면, 작은 소망을 한 번 빌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왓 프라깨우



왓 포 와불



왓 포





왓 포에서 벗어나 '왓 아룬'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상 보트를 타야한다. 왓 아룬의 우아함에 감탄하는 동안 수상보트는 사람들을 왓 아룬 앞에 내려놓는다. 방콕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왓 아룬은 태국 10바트 동전에서 볼 수 있다.

해를 등진 그 실루엣에 눈을 때지 못하고 있는 순간, 보트는 선착장에 도착했고 점점 왓 아룬의 아름다움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다양한 색깔의 도자기 조각이 햇빛을 받아 뿜어내는 빛깔은 눈부셨다. 90도 가까이 되는 경사도의 계단을 올라 왓 아룬의 중간부분에 오르면 짜오프라야 강변이 한눈에 들어와 시원한 풍경을 맞이할 수 있다. 이곳에 왔다면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꼭 한번은 올라가보아야 한다. 아! 왓 아룬을 천천히 둘러본 후, 다시 강을 건너와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왓 아룬의 야경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다.

하루의 여행을 마무리 하는 순간,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생각해봤다. 눈앞의 강과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보여주는 왓 아룬도,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 하던 와불도 물론 좋았지만 그래도 그 중 최고는 '대학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를 만난 것이다.

짜남 루앙에서 지도를 가지고 두리번거리며 왕궁으로 향하는 방향을 찾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접근을 했다. 그는 자신을 대학교수라 소개했고 오늘은 '불교의 날' 이라 왕궁과 왓 프라깨우가 오후쯤 되어야 문을 연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트를 타고 왓 아룬을 먼저 본 뒤, 왕궁을 구경하라 조언을 하며 지금 당장 '톡톡(오토바이를 개조한 승합차량)'을 타고 강변으로 가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 톡톡을 잡아 주겠다고도 했다.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지만 그의 말대로 따라줄 수 없음을 알렸을 때 그는 금세 얼굴을 실룩거리며 "You're stupid."라 말했다. "I'm sorry."라고 하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엄청 화가 난 표정으로 떠나버렸다.

그의 말에는 거짓과 진실이 함께였다(사실 그는 대학교수가 아니라, 바가지요금을 받고 보트를 태우려는 속셈으로 접근한 인물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던 그 순간들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여행의 소중한 한 부분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방콕은 거대도시다. 그 속에는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뭔가 복잡하지만 나름의 질서를 가진 채 역사를 존중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는 모습은 황금빛 사원만큼이나 인상적이었다. 이곳들이 방콕 불거리의 절반이라 한다. 하지만 아직 반의반도 접하지 못한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

다양한 모습을 지닌 방콕을 여행하고 싶다면, 그 첫 발걸음은 방콕이 간직하고 있는 과거의 시간에서부터 내딛는 것도 좋을 것 같다.

Tip

- 01 _ 방콕 숙소에서 관광지를 찾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머물고 있는 숙소의 안내데스크에 문의하는 게 최선!
- 02 _ 수상보트 이용 시, 보트 깃발의 색에 따라 요금이 다르니 유의하자!



퀴즈도 풀고, 의견도 나누고

〈양산ICD소식지〉와

독자들이 소통하는 유익한 공간!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을 donnynix@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가을호 퀴즈

2006년부터 건조되기 시작하여 2009년에 진수식(進水式)을 가진 대한민국 극지탐사선(쇄빙연구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독자 의견을 받습니다

〈양산ICD소식지〉의 성장을 위한 의견이나 소식지에 실렸으면 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제안/ 제언을 접수합니다

양산ICD의 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에 대한 격려, 부족한 점에 대한 아쉬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 양산ICD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www.ysicd.co.kr

(주)양산ICD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제방로 225

Tel. 055)372-0932~4,6

Fax. 055)372-0937

양산 ICD 내륙컨테이너기지

양산ICD(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는 내륙항만으로서의 역할과 화물의 통관, 보관, 주선, 내륙운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영남권 최대의 컨테이너화물 복합물류기지입니다.

부산항 북항 및 신항과 연계한 수출입 물류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장기 보관이 필요한 재유통컨테이너의 보관, LCL화물 처리 뿐만 아니라 3자물류, 제조·판매 시설의 운영 등 고객들에게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